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 제 1 회 □

L :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K :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기독교에서 늘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것이 논쟁에 그칠 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의 동기가 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약성서를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지 않는가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구약 성서를 다 읽어 보아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가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180년 안디옥의 테오필러스(Theophilus)가 처음 이 술어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신앙 문제를 둘러싸고 각가지 이단 사설(邪說)이 나오게 되자, 신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참된 내용을 하나의 교회의 형식으로서 정리하여 가지고, 이러한 이단에 대한 논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L :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결국 이단에 대한 논박을 하기 위해서 신앙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군요 ?

K :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신약성서 안에 나타난 신앙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데 더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초대 교회는 그것을 규정하고 해결해서 정리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서 안에서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될 것이 무엇인가고 물어 볼 만도 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마태복음 3 장 16—17 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분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한에서 인사말을 할 때면 꼭 성부와 성자로써 화평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L : 저희가 알기에는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 하던데, 유일신교에서 어떻게 삼위의 신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K :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처럼 유일신을 강조하는 종교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일신교에 새 차원을 주어서 보편적인 인류의 신앙으로 그 넓이와 깊이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적인 전환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L : 유일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 : 좀 더 설명하자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고 있는 영어 자습서 중에서 ‘삼위일체 종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어를 삼위일체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꼭 흥미 있는 사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실이겠습니까. 한국어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는 단위로서는 각기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언어를 삼위일체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 말의 문법, 그리고 말의 해석,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 즉 작문을 익힘으로써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말을, 문법만 알았다고 해서, 그 말의 본래 의미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여서 비로소 한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 언어가 셋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언어는 어디까지나 하나입니다. 다만 그 하나인 언어를 이해하는 데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언어의 구조와 연구를 신앙의 삼위일체에다 적용시켜 이해하는 것이 좀 어설픈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이것은 삼위일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니 할 수 없이 불완전한 예를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L : 삼위일체가 유일신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일신교가 역사적으로 발전한 형식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한 교리가 우리의 실제 신앙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K :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젠가도 다루어 본 바와 같이, 신앙은 언제나 아는 지식의 면과 아울러 사는 길, 즉 실생활에서의 행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와 신앙 생활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여야만 그 실제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선적이요 평면적인 합리주의나 이성으로써 신앙 문제를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적인 모순 때문에 이 교리가 실생활에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겠습니다. 신앙 생활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모순으로써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 자체가 지니는 창조적인 긴장 관계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체험합니다. 창조적인 긴장 관계라는 말은, 유일신 여호와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속죄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 되는 사실입니다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창조적인 사업 때문에 생겨지는 긴장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는 긴장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지는 변증법적인 긴장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셋 중의 하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면에는 실제로 그리스도교 본래의 신앙과는 동떨어진 신비주의가 아니면 합리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가지는 창조적인 긴장을 인정하고 이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다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문제는 신학자나 목사만이 알아 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모든 신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 제 2 회 □

L : 다음은 그리스도교의 신관(神觀)에 대해서 좀 여쭙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부터 시작해 볼까요?

K :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본래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바칠 장소를 둘러싸고 대단한 논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질문을 했을 적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새 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배가 한 지방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똑똑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간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과 대립되는 것, 말하자면 물질과 유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온 꾀단이 많았습니다.

L : 그리니까 영혼과 물질을 대립시키는 것이 그리스 사상에서 받은 영향이라는 말씀이군요?

K :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성서적인 신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라는 말은 구약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신 권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이 땅에 주는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빛이라는 것이 계시와 안전, 희열의 상징이었지요.

L : 하나님의 본성을 영(靈)과 빛(光)이라고 한다면, 그의 속성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K : 하나님의 속성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인격신이다 (2)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3)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4)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5)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6)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7) 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대개 이상 일곱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 :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성서 가운데는 다른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K :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과 같은가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칭호에 더 깊고도 새로운 의미를 예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바(Abba)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막 14:36). 그리고 주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권하셨습니다(막 6:9).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 수 있지요.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귀절이 아닙니까? 세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부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나 집단의 목자로 표현되어질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통치자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 장 25 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아버지, 목자, 왕, 심판자들과 같은 말로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칭호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L : 기독교의 신관, 혹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가장 기본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창조주로서의 성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K : 그것은 이러한 속성과 칭호의 문제는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크리스토퍼스틴이란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전에는 왕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 하며, 도시에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조의 세계에는 창조주가 있어야 한다.” 이 우주가 다만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믿는 생활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L : 그러면 이런 창조에 대한 신앙이, 자칫하면 만물 속에 영이 있다고 주장하는 애니미즘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K :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창조 신앙은 사마니즘과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만물 속에 영이 있다고 하는 애니미즘이나 사만과는 다르다고 하겠지요. 특히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 기독교의 창조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목적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해하여야 합니다.

L : 한국의 토착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K : 우리의 전통적인 토착 신앙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 다른 기회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한국의 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가 혁명적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인격신이라는 개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유교의 윤리 규범이나 불교의 법(dharma)이 결코 역사적인 인격신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결코 어느 종교가 더 낫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문제보다도, 그 종교의 특이성이 무엇이며 각 종교와의 접촉에서 어떤 관련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연구의 과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신관이 한 민족에게 받아들여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민족의 토착적인 신앙과의 대립이나 융합이나 하는 두 가지 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가 대립되어서 한 쪽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대립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서로 융합되어지는 면도 얼마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제 3 회 □

L : 삼위일체라든가 기독교 신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중점을 둔 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된 말이지요?

K : 구약성서를 읽어 보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여 낸 여호수아(Joshua)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도와준 대제사장의 이름도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속 3:1).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구원한다, 도와준다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주께서 구하시리라’ 또는 ‘주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회람어로 번역될 때 Jesus로 되고, 라틴어로는 Jesus라고 번역되었지요.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게 나타나 아기를 낳거든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L: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K: 요즘은 교파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이거나 예수라는 명칭을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서 중에 나오게 된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번은 갈릴리 북방에 있는 혈몬산 기슭에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예언자라고 하더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에 예수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야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마 16:13-16). 이것이 예수를 메시야라고 하고 주라고 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메시야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그 메시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야라는 말을 회랍어에서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이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입금을 기름 부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는 의식이 있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으로 선택했다는 표징으로 하는 의식이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구약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Cyrus)에게도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나 외국 왕, 예언자, 대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록한 자로 성별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을 따라 이 메시야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민족의 구주에게만 국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더 강하게 유대 민족의 가슴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여서 유대 나라를 재건하고 정치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구주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에게 이러한 최고의 칭호를 붙여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을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으로 보고서 이러한 칭호를 붙였다고 할 수 있지요.

L: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관련하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 먼저 성령의 기본적인 성서적 개념을 다루고 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활동하시는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초월자인 동시에 인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그의 창조의 활동을 계속하는 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실제로 움직이어서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고 써어져 있습니다.

L: 그런데 성서에서는 성령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개 어떤 경우에 비유로써 성령을 말했는가요?

K: 성령의 신비하고도 억제 못하는 힘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였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깨끗하게 하는 힘, 그리고 빛과 따뜻한 기운을 주는 힘으로 표현할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때에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생명을 키워주는 물이 성령으로 비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막 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이 동물이나 식물에게 주는 생명적인 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에 이런 뜻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39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의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성령이 비둘기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생명을 주는 영의 상징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둘기는 순수함과 온유한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L: 성령을 바람이나 불, 물, 그리고 비둘기로 비유해서 그 성격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 생활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K: 옳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이 성령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서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란 결코 샤머니즘이나 무당 종교에서 생각하는 마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상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좀 힘든 말로 한다면, 한 사람의 마음과 몸과 또 생활에서 통합(integrity)을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식, 감정, 의지가 잘 통합이 되어서 건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知情意)가 제대로 잘 통합되어서 인격이 발전되지 않으면 원숙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어떤 마술이나 미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오는 것입니다.

L: 그렇다면 성령과 인격 형성과의 관계가 성령의 근본적인 것일까요?

K: 예, 성령의 힘이 인격 형성에 주는 결과를 말했읍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의 통합성을 이룩하는 반면에 자신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역설적인 힘을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원칙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인 통합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죄를 깊이 깨닫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애(아가페)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감상적인 휴우머니즘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제 4 회 □

L: 말씀의 전달은 사건으로서 또는 경험으로서의 말씀, 성육(成肉)하신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을 내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상이나 지식만이 말씀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 하나가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말씀을 신비주의적으로나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한 사건으로서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달로서의 말씀이란 문제를 다루었읍니다만, 그러면 신앙에 도달하는 길은 말씀의 전달로써 다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지 한 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K: 신앙에의 비약은 전달이나 지식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도약대에서 물을 향하여 다이빙하는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낙하산의 퍼지는 힘을 믿고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는 때도 무한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이 몸을 던져 하나님에게 투신한다고 할까 현신한다는 때는 이보다 더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의 비약을 하는 용기를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어떤 마술적인 힘과 혼동하며, 심리적인 황혼이나 병의 치유에다가 직결시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두 가지 이유를 구별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이렇게 이해한 신앙에의 결단을 하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말한다면, 성령이 우리 신앙의 장애를 극복하고 결단하는 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이해와 용기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저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L: 용기가 없는 때는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변하게 할 수 있으나, 내 의지 자체를 변케 한다는 것, 즉 나 자신을 변케 한다는 일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니까요. 엄밀히 따져서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 인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지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 자기 이외의 어떤 힘의 작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 그런데 신앙에 저해되는 요소가 이해의 결핍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 그러나 성령은 이해나 용기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기를 합친 것을 권장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둘로 나누어져 표현되지만, 실제의 사건, 움직임으로서 볼 때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은 유령이나 또는 국가 민족의 이념으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회랍어는 성령을 누우스(nous)와 프뉴마(pneuma)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우스는 변치 않는 불빛과 같고, 이 빛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뉴마는 바람을 일으켜 사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우스는 무시간적인 진리와 관계가 있고 프뉴마는 시간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L: 하여튼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말이 가지는 근본 뜻과 뉘앙스를 잘 이해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과 신앙의 전달, 또는 우리가 처음 언급하던 지식과 용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읍니다. 용기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자신의 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위급한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용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나 사건에 대한 용기보다도 생 자체에 대한 용기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K: 여기서 신약성서의 성령 문제와 신앙의 용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다 다룰 수는 없읍니다만, 성령 문제를 정리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간추려 말할 수 있겠읍니다. 첫째로는 초대 교회에서는 성령이 교회의 존재 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 신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

당시 세속적 회랍에는 ‘성’이라는 개념과 ‘영’이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말이라곤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진히 성서에만 국한된 어휘였고 유대교 안에서 씌어진 용어였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성령의 경험과 그리스도예의 신앙은 같은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리시키는 일은 사교요,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신앙의 은사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를 훈련하고 제재하는 힘을 가진 것이 성령입니다. 열광주의와 신앙과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째는 성령이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유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성령의 힘에 맡긴다는 뜻에서 성령의 소유가 되다는 것입니다.

L: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과 신앙의 관계도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역시 성령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인간이라고 하면, 성령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앙과 성령은 한 사건의 양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막 9 : 2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K: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 심리학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이것을 광신적인 사교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는 물론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참 복음의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미신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다만 비상한 것, 초자연적인 것에다
만 비추어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에서도 찾아 내야 할 것입니다. 늘 보던 자
연이나 가족들이 날로 새롭게 보여지는 일이라든가, 타성
과 인습 속에서 계속하던 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서 보람을 느낀다든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부
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새로움과 보
람을 느끼게 하는 일들,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 경탄을 느끼
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L: 우리는 과거에 성령이란 말을 너무 좁은 의미로써만 해
석했다는 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인간상, 또 새로운 생활
스타일에 결부시켜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